

논문접수일 : 2013.06.20

심사일 : 2013.07.03

게재확정일 : 2013.07.23

장소성 형성을 위한 도시공원의 유형에 관한 연구

- 장소자산 분류와 활용방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ypes of Urban Parks for the Formation of Placeness

- Focus on Place Asset Classification and Utilization method -

주저자 : 김미영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박사과정

Kim Mi-Young

Chosun University

교신저자 : 문정민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Ph.D)

Moon Jeong-Min

Chosun University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도시공원과 장소성
- 2.2. 장소성과 장소자산

3. 장소성 형성을 위한 도시공원의 장소자산 분류

- 3.1. 장소성 형성 구조와 요인
- 3.2. 도시공원의 장소자산 분류

4. 도시공원 사례분석

- 4.1. 사례분석개요
- 4.2. 사례분석
- 4.3. 소결

5.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다양성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경쟁단위도 도시 중심체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그로 인해 각 도시는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런 차별화전략의 하나로 도시공원의 조성을 들 수 있다. 도시공원은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민에게 쾌적한 삶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공원 조성은 지역의 장소적 맥락이나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별 분류체계 및 필요 시설만을 구비하는데 그치거나, 해당 지역의 단편적인 특성을 상징화하여 부각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의 장소성 형성요소를 기준으로 장소자산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시공원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특징적 장소자산의 성격에 따라 공원의 주제가 결정되는 특성이 보였다. 여기서의 자산은 지형, 이용자들의 행태, 의미적 요소 등 맥락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된 요소들은 의미한다.

둘째, 장소성을 형성하는 각 요소의 활용 방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리환경요소는 형태적 시각화와 의미적 시각화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며, 체험요소는 설명적 프로그램과 연상적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적 방식이 활용되었다. 의미요소는 풍토적 특성을 가시화하는 방식과 연상화를 통한 의미 인식 방식이 활용되었다. 활용 방식은 국내외 사례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장소자산의 분류 및 활용방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생태자연자산은 주로 자산을 보존하는 방법과 새로운 요구가 결합된 개발적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생태자연자산 개발형, 생태자연자산 보존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전통역사자산은 의미를 보존하는 방법이나 재활용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재생적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전통역사자산 보존형, 전통역사자산 재생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자산은 체험적 프로그램이나, 시설적 측면의 개발을 통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문화예술자산 개발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는 도시공원 조성 시 목적에 따른 장소 특성을 보다 잘 형성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장소성, 장소자산, 도시공원

Abstract

As our society is oriented towards globalism and localization, the value of diversity is becoming more important and there is competition centering on cities. So, the competitive powers of cities have become more important and each city needs to create its own differentiated image using its history and culture as resources.

One such differentiation strategy is the make-up of urban parks as urban parks can work as a media in a pleasant life to create a local image for local people. However, current urban parks only focus on theme classification systems and necessary facilities a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They do not consider the context of place or the assets of each area.

Therefore, this study analysed the assets of place based on factors of placeness in urban parks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placeness in urban parks, the themes of parks were decided 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ssets. The assets are those which were analysed from a contextual point of view such as the topography, the behavior of users, and semantic factors.

Secon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s of local assets and their application methods, the types of urban parks were classified.

For ecological natural assets, methods of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were mainly used and the types were categorized into those that develop ecological natural assets and those that preserve traditional historic assets. For the traditional historic assets, a regenerative method to preserve their meaning or to form new meaning through reuse was used, and the resulting types were categorized as the preservation type and the regeneration type. For cultural and artistic assets, experimental programs or facility development were mainly used and there was a type of development for cultural and artistic assets. It is suggested that these could be useful as classification systems which can show the characteristics of places according to their purpose in the make-up of urban cities.

Keyword

Placeness, Place Assets, Urban park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국가 중심 체제에서 도시 중심 체제로 변화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각 도시는 고유의 역사, 문화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시의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도시공원의 조성을 들 수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민에게 쾌적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는 지역의 장소자산을 바탕으로 그에 포함되는 장소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공원 조성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의 장소와 환경, 또 지역민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채 단지 기능적측면의 목적만을 고려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해당 지역의 단편적인 특성을 차별화 요소로 부각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공원과 장소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장소의 특징적 자산별로 활용방법을 분석하여 도시공원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장소자산의 특성에 따라 도시공원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장소성을 형성하기 위한 구조 및 요소를 도출하고, 도출된 장소성 형성 요소를 기준으로 도시공원 사례별로 활용되고 있는 장소자산을 분석함으로써 자산의 분류 및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도시공원을 유형화 한다.

연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사례의 범위는 도시공원이 지역차별화를 위한 장소전략으로 부각된 시기인 2000년대를 전후하여 조성된 국내외 공원사례를 그 중심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의 특성으로는 공원 조성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부지를 재활용하거나, 유휴지를 사용하여 공원을 조성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도시공원과 장소성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¹⁾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생활권 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제공원은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목적형의 유형 분류는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수성을 살린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한계점을 가지며, 지침상의 필요 시설만을 구비하는데 그쳐서 장소별 특성이 없이 조성 되고 있다.

특히 현대로 오면서 도시공원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소전략으로 활용되면서 장소의 고유한 자원 및 가치를 발굴하고 장소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게되었다. 이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시각적이고 형태적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에서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는 실존적 장소의 개념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매튜 카모나(Matthew Carmona)²⁾도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공공공간을 계획, 디자인함에 있어 각 도시별로 확립화된 접근 방법보다는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매튜 카모나, 2006/ 백승경, 김주연, 이승훈, 2009. 재인용)

이러한 공공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장소성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공공공간을 물리적 환경의 공간개념에서 장소 개념으로 인식하고, 필요 기능의 해결 측면에서 지역 특유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차별화된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따라서 도시 공원은 지역의 장소성을 반영하고 이용자와 공원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2조 정의

2) 영국 런던대 바틀렛 스쿨의 도시계획과 과정을 맡고 있는 카모나 교수는 도시계획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왕립 도시계획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도 다양하게 참여해왔다. 그는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지속하면서 도시설계에 있어 특히 역사성과 문화적 맥락을 강조해왔다.



[그림 1] 도시공원과 장소성의 관계³⁾

2.2. 장소성과 장소자산

장소(place)는 보통 지리적 위치(location)를 나타내지만 의미상으로는 어느 지점을 다른 지점과 구분해주는 근본적인 특징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간(space)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간이 인공적인 소환경에 대한 물리적 공간이라면 장소는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확장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김승희, 2011)

루커만(F.Lukermann, 1964)은 장소의 개념을 위치, 자연과 문화의 통합, 공간적 상호 연관성, 국지성, 형성성, 의미의 여섯 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루커만은 장소가 특정한 위치에서 일어나는 자연과 문화의 통합이며, 다른 장소들과의 상호작용을 내포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것으로, 인간이 그 장소에 의미와 믿음을 부여하게 되는 종합적 실체(남윤학, 2012)로 파악하였다.

장소성은 장소가 가진 유·무형의 환경을 바탕으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된 의미이다. 따라서 장소성을 형성하는 1차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는 유·무형의 환경, 즉 장소자산(place assets)이 기초가 된다. 장소자산은 각 지역이나 장소의 물리, 제도, 문화, 사회적 특수성과 현상적 작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건조 환경, 자연 환경의 물리적 자산, 인문·문화적 자산, 전통·역사적 자산 등이 있으며 장소성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핵심적 요소이다.

3. 장소성 형성을 위한 도시공원의 장소자산 분류

3.1. 장소성 형성 구조와 요인

본 절에서는 장소성의 형성 구조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1976)는 장소성을 형성하는 기본요소로 물리적 환경, 인간의 활동, 의미

3) 출처: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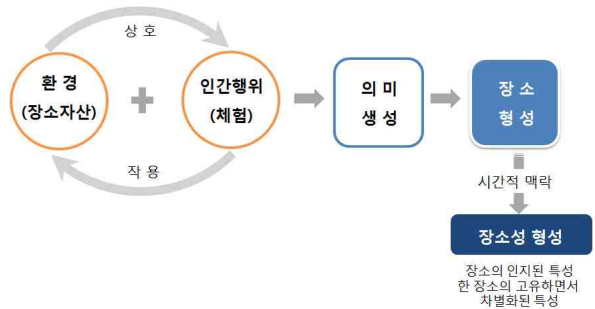
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장소성 형성 구조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는 장소성의 원재료이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 연계 되느냐가 장소성을 구조화하는 기본적인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푸 투안(Yi-Fu Tuan, 2001)은 장소성을 물리적 환경에서 인간의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의식으로 그 구조를 설명하고, 구성요인으로 자연환경, 인공 환경, 인간, 문화적 정체성을 제시하고, 영향요인으로 시간과 가시성을 제시하였다.

김성수(2003)는 E. Relph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장소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활동, 의미 그리고 정적인 물리적 장치의 3가지로 장소성 형성구조를 제안하고 여기에 시공간적인 맥락의 결합과 요인들 간의 상호 조합을 통해 다른 환경과 구분되는 장소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백선혜(2004)는 장소성은 인간의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의식으로, 가시성과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구조를 설명하였다. 형성 요인으로는 물리적·환경적 요인, 인적·문화적 요인, 상대적 요인, 정서적·상징적 요인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상대적 요인은 장소 내부의 특성이 아니라 장소간의 특성으로 물자 및 인구의 유동에 따른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의미한다.

전미화, 이찬(2011)은 장소의 물리적 입지조건과 시·공간적 맥락,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합의된 상징성을 내포한 장소의 이미지의 구축을 통해 장소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리적 요인, 활동, 의미, 시공간적 맥락의 네 가지 요인을 루커만의 장소개념과 연계하여 장소성 형성 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림 2] 장소, 장소성의 형성 구조4)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요인, 체험요인, 의미요인의 세 가지로 장소성 형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물리적 환경요인은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소 형성 요인

중 가시성과 관련된다. 장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자연적 가치들을 시각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이미지로 전환하는 요인이다. 체험 요인은 이용주체가 장소에서 행하는 활동을 공간속에서 유발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의미요인은 시간적 맥락을 통한 지역의 변치 않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대변하는 요인이다.

연구자	장소성 형성 요인			
Relph (1976)	물리적 장치	활동	의미	
Yi-Fu Tuan (2007)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간	문화적 정체성	시간, 가시성
김성수 (2003)	물리적 요인	활동	의미	시공간적 맥락
백선혜 (2004)	물리·환경 요인	인적·문화적 요인	정서·상징적 요인	상대적 요인
전미화 (2011)	물리적 요인	활동	의미	시공간적 맥락
본 연구 재정리	물리적 환경요인	체험요인	의미요인	

[표 1]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장소성 형성요인

3.2. 도시공원의 장소자산 분류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도시공원의 장소 자산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시공원의 자산을 재 분류 하였다.

Kotler P.(2002)는 장소의 자산을 경영적 측면에서 장소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크게 연성요소(soft factor)와 경성요소(hard factor)로 분류하였다. 연성요소는 제도, 정치, 문화,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하며, 경성요소는 건조 환경, 자연환경, 물리적 시설을 포함하였다.

장소자산의 분류에 대한 연구에서 김현호(2003)는 장소 판촉의 유형을 산업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필요한 장소자산을 문화자산, 제도·정치자산, 물리적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문화자산은 예술, 생활방식, 인간관계 등의 무형적 요소를 의미하고 제도·정치 자산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협력을 물리적 자산은 물적 인프라, 건조 환경을 의미한다.

이용균(2005)은 장소자산을 자연환경, 문화, 사회경제, 제도로 분류하였다. 자연환경은 산, 하천 같은 자연경관 자산이며, 문화는 전통 문화재와 문화 축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경제 자산은 문화시설, 물리적 이용시설, 특산품 등의 유형적 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제도는 정체성, 인지도, 역사적 흔적 등과 같은 무형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장신영(2008)은 장소자산을 생태자산, 사회·경제자

4) 출처: 연구자 작성

산, 역사·문화, 정서적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생태자산은 하천, 산, 바다, 지형, 기후 환경과 같은 자산을 포함하였고, 사회·경제 자산은 물적 인프라를 포함하며, 역사·문화 자산은 고궁, 문화시설, 이벤트, 축제, 관광지구, 무형의 유물 자산으로 정서적 자산은 주민 통합성, 정체성, 장소이미지, 생활방식 등의 자산이다.

연구자	장소 자산			제도적 자산
	물리적 자산	문화자산	제도적 자산	
김현호 (2003)		문화자산	제도적 자산	제도적 자산
이용균 (2005)	자연환경 사회경제	문화자산	제도적 자산	제도적 자산
장신영 (2008)	생태자산	문화자산	제도적 자산	제도적 자산
	생태자연	전통역사	문화예술	

[표 2] 장소 자산의 재분류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의 자산은 시설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고 물리적 환경에서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체험, 관람 등)과 의미적 차원에서 유·무형의 자원이 통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도시 공원의 장소자산을 분류할 때도 장소의 유·무형적 자산이 통합적 차원에서 분류 될 필요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생태자연자산, 전통역사자산, 문화예술자산으로 재분류를 하였다.

생태자연자산은 지형, 경관, 산, 바다, 동식물 등과 같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지리, 환경적인 요소이다. 전통역사자산은 유·무형의 전통 문화재, 전통 문화를 활용한 축제, 역사적 설화, 역사적 시설물, 역사적 흔적 등의 요소이다. 문화예술자산은 예술, 생활방식, 문화 축제 및 이벤트, 문화적 특산품,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등을 포함한 문화 시설물, 기념 조형물 등의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특정 장소의 자산은 오랜 기간 동안 인간-환경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문화가 누적된 결과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의미와 유용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그 활용방법도 시점에 따라 보존, 재생, 개발로 구분되어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여 활용되어진다. 여기서 보존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간에서 해당 자산이 지속적으로 의미를 갖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활용이다. 재생은 효용이 없어진 자산을 기존의 자원의 활용과는 용도를 달리하거나, 재가공을 통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은 자원을 개척하여 유용화하는 것으로 자원이 있었으나 활용되지 않았거나 시대의 변화로 인해 새로 생성된 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도시공원 사례분석

4.1. 사례분석개요

이 장에서는 각 도시공원 사례별로 3장에서 추출한 장소성 형성요인을 기준으로 각 도시공원 사례별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자산과 활용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도시공원은 최근 현상적 체험의 환경으로서 사용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장소만의 느낌, 의미 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례분석의 대상은 시간적으로는 도시공원이 장소전략으로 활용되어 최근의 도시공원 개념이 반영된 시기인 2000년대를 전후하여 조성된 국내외 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의 특성으로는 공원 조성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부지를 재활용하거나, 유휴지를 사용하여 공원을 조성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공원명	개장	위 치	면적
국외 사례	베르시 공원	1995 프랑스 파리 세느강변	14만㎡
	뒤스부르크 노드파크	1999 독일 북서쪽 루르지구 엠서강변 중공업단지	23만㎡
	밀레니엄 파크	2004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내	10만㎡
	하이라인파크	2009 미국 뉴욕 맨하탄 고가 공원	2.4km
국내 사례	선유도공원	2002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선유도	11만㎡
	푸른길공원	2002~진행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역-남광주역-동성중 구간	7.9km
	인양예술공원	2005 경기도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산21	209㎡
	북서울 꿈의숲	2009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 173	60만㎡

[표 3] 사례분석 개요

4.2. 사례분석

(1) 영국 베르시 공원 [A]

베르시는 프랑스 파리 동남부의 신시가지로 19세기 와인 거래지로서 유명했던 곳이다. 서로 다른 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고 있는 베르시의 공간형태와 중첩된 역사적 흔적을 활용하여 조성되었다.



	자산	내용	활용	
장소성형성요소	물리환경요소	생태자연	포도순 모양으로 식재패턴 표현 포도시렁이 있는 과수원 조성	개발 개발
		전통역사	부지 내 포도주 창고 외곽선의 연장과 내부 보존	보존
			틀 포장길과 포도주통 운반철로 보존	보존
	문화예술	기존 건축물을 개조해 전시장 조성	재생	
	체험요소	생태자연	자연학습과 녹지관련 전시	개발
		전통역사	베르시 역사와 공원 조성 개념 설명 프로그램	개발
	의미요소	생태자연	200년이 넘는 400여 그루 나무 보존	보존
		전통역사	기존 포도주공장배치를 존중한 산책로와 신규 산책로의 겹침으로 공존 의미	개발

[표 4] 프랑스 베르시 공원

(2) 독일 뒤스부르크 노드파크 [B]

뒤스부르크는 독일 북서쪽 루르공업지대의 중심적인 도시이다. 과거 제철소가 가동되던 공장시설을 재활용해 과거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특성을 형성하였다.



	자산	내용	활용	
장소성형성요소	물리환경요소	생태자연	360회전형, 고가보행로형 전망대로 점적,선적 경관	개발
		전통역사	기존 하수로 생태 정화시스템 활용	재생
			공장건물을 활용한 야간경관	재생
	문화예술	메탈리카 광장에 적철광관을 재료로 활용해 과거 기억	재생	
	체험요소	전통역사	공장시설 해설 및 시설 활용한 체험	재생
		문화예술	기존 동선체계 활용해 흔적체험	보존
	의미요소	생태자연	각종 이벤트 및 암벽타기, 스킨스쿠버, 사이클 프로그램	개발
		전통역사	기존시설과 어우러진 패턴의 식재로 대상지역과 상징, 환경 복원 의미	개발
		문화예술	철거 자재 활용 및 시설물의 잔재 보존해 의미부여	개발
문화예술	도시문화와 결합되어 레크레이션장으로 활용되며사회적 복원 의미	개발		

[표 5] 독일 뒤스부르크 노드파크

(3)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 [C]

1850년부터 20세기 말까지 일리노이(Illinois)의 중심을 지나는 철길, 방대한 주차장, 잔디로 구성된 그랜드파크(Grand Park)의 일부원이었던 곳을 예술적 조형물, 건축물, 음악공연 등 예술을 느끼며 자연과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문화예술공원이다.



	장소	내용	활용	
장소성형성요소	물리환경요소	생태자연	2400종의 식물이 자라는 루리가든	개발
		전통역사	설립자를 소개한 기념 건축물	개발
		문화예술	프랑크 게리의 콘서트 홀 예술조각물과 만난 랜드마크 분수	개발 개발
	체험요소	생태자연	루리가든 투어프로그램 루리가든 주변에 수로와 데크 설치	개발 개발
		문화예술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	개발
			전시프로그램 시민 참여 운동프로그램	개발 개발
	의미	문화예술	옴파로스 모티브로 제작된 조형물	개발

[표 6]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

(4) 미국 하이라인파크 [D]

하이라인파크는 아트갤러리와 박물관 지역인 서부첼시의 1980년도에 운행 중단된 뉴욕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의 화물전용 고가철도를 재활용해 조성한 지상 10m의 공원이다. 철도의 역사, 방치된 기간의 식생, 갤러리와 박물관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색까지 연계하여 조성되었다.



	자산	내용	활용	
장소성형성요소	물리환경요소	생태자연	철도시설이 방치된 기간의 식생 보존	보존
		전통역사	구간별 객석형태의 전망대 설치로 경관 활용	개발
			아르데코스타일의 철로 보존 고가에 철로, 침목, 철로시설물보존	보존 보존
	문화예술	갤러리, 박물관의 지역특성을 공간구성에 반영 (미니공연장, 전시장, 객석 등)	개발	
	체험요소	생태자연	나비와 새 서식지에 시민 참여 정원 프로그램	개발
		전통역사	첼시와 하이라인의 역사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지역 갤러리와 연계한 공공미술 중심의 아트프로그램	개발
	의미요소	생태자연	바닥 마감석재와 식재의 자연스런 연계로 식생보존표현	보존
		전통역사	철로 레일에 이동 가능한 벤치 설치하여 철도미 강조 뉴욕시의 모더니티 정신 유지와 친환경개발 의미	개발 개발

[표 7] 미국 하이라인 파크

(5) 서울 선유도 공원 [E]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에 수도 물을 공급하던 정수장 건축구조물을 재활용하여 물을 주제로 조성한 환경재생 생태공원이다.



	자산	내용	활용	
장소성형성요소	물리환경요소	생태자연	북한산과 한강 하류 섬이라는 자원	보존
			물의 파동 형상화한 물놀이장	개발
		전통역사	과거 정수장 구조물을 공간 및 조형물로 재활용	재생
	체험요소	문화예술	한강생태계와 시민들의 생활상전시관	개발
			원형 소극장	개발
		전통역사	선유도의 역사, 기존시설에 대한 전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의미요소	전통역사	기존 시설물의 오래된 색, 불규칙한 표면, 선으로 시간성 표현	재생	
		과거 정수장임을 상징한 물 공원	개발	
		기존 구조물에 나무 심어 상징	개발	

[표 8] 서울 선유도 공원

(6) 광주 푸른길 공원 [F]

1922년 광주 송정리에 첫 도입된 철도의 일부가 외곽으로 이설되면서 남게 된 폐선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국내 최초의 폐선부지 활용 사례이며 시민 참여형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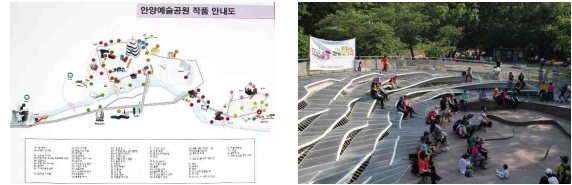


	자산	내용	활용	
장소성형성요소	물리환경요소	생태자연	주변 경관, 녹지와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구축 (텃밭, 식생, 벽화 등)	개발
		전통역사	폐기차를 푸른길 홍보관으로 활용	재생
			기존 철로, 철도시설물 보존, 활용	재생
	체험요소	생태자연	푸른길 조성위한 식수 및 관리 시민 참여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어린이 그림, 글짓기 대회	개발
			대학생, 일반인공모전 개최	개발
의미요소	전통역사	문화행사 개최	개발	
		철도 피해를 위한 위령제	보존	
	과거 도시화 상징과 현재를 연계	보존		

[표 9] 광주 푸른길 공원

(7) 경기도 안양 예술공원 [G]

경기도 안양의 관악산과 삼성산의 숲속 산책로가 공원일만큼 자연과 함께 하고 있는 곳으로 골짜기에 서 흘러내리는 천연수가 이용되는 공원이다. 기존에 안양유원지였던 터를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조성한 자연과 예술작품이 융합된 이색적인 예술 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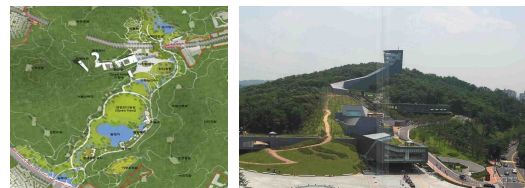


	자산	내용	활용	
장소성형성요소	물리환경요소	생태자연	숲을 활용한 공원 산책로 조성	개발
			산의 등고선 형상화한 전망대	개발
		문화예술	지형 형상화한 야외무대와 객석 조성	개발
			전시관	개발
	체험요소	전통역사	공원과 주변의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등산로로 연계	개발
		문화예술	체험형 예술작품의 설치	개발
의미요소	생태자연	계곡의 맑은 물을 상징하는 인공폭포 조성	개발	
	문화예술	민화 안내지도	개발	

[표 10] 경기도 안양예술공원

(8) 서울 북서울 꿈의 숲 [H]

북서울 꿈의 숲은 오패산과 벽오산이 위치한 곳이다. 기존에 놀이공원인 드림랜드가 있던 곳으로 사용되지 않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들을 비우고 지형에 맞는 생태적 녹지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자산	내용	활용	
장소성형성요소	물리환경요소	생태자연	호수주변으로 정자, 폭포등 경관연출	개발
		생태지형 형태를 따르는 전망타워 조성	개발	
		문화재인 청녕위궁제사 건물 복원	보존	
	전통역사	기존 석축을 활용한 휴게쉼	재생	
		기존 눈썰매장 의 경사부지 활용한 시설물 조성 하여 복원 상징화	재생	
	문화예술	공연장, 전시장, 전망타워 등의 문화 공간 조성	개발	
	체험요소	생태자연	건강테마공원, 쌈지마당 등 주민 일상 체험형 공간 조성 (전망데크, 연결브릿지, 조형물)	개발
		문화예술	점핑폰트, 볼프라자, 야외공연장 등 참여형 공간 조성	개발
	의미요소	생태자연	벽오산 일대의 숲 지형의 복원	개발
		전통역사	오패산 산신제	보존
문화예술		지역성에 뿌리를 둘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문화시설 조성	개발	

[표 11] 서울 북서를 꿈의 숲

4.3. 소결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공원의 장소성을 형성하기 위한 요소들의 계획 특성과 장소자산의 활용 방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장소성 형성요소의 계획 특성 중 물리환경요소는 가시화하는 방법을 통해 나타났다. 가시화는 대상자체의 특성이 외부적인 형태로 보여 지도록 시각화하는 형태적 시각화 방식과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자원을 보존하거나 또는 유사한 특성의 형태나 관념을 활용하는 의미적 시각화 방식으로 나타났다.

체험요소는 장소의 특성에 대한 설명, 전시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방식과 전시, 공모전, 공연 등과 같은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융합함으로써 장소의 기억과 흔적을 연상적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의미요소는 사물의 현상이나 가치를 의미할 수 있는 재료, 식재, 컬러, 시설물, 조형물을 통해 가시화하는 방식과 기념제와 같이 매개체를 통해 의미를 연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사례의 장소자산 활용 방법은 [표 13]과 같이 분류되었으며, 분류 특성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자산활용	A	B	C	D	E	F	G	H
생태자연자산	보존	○	×	×	◎	○	×	×
	재생	×	○	×	×	×	×	×
	개발	●	◎	●	◎	○	◎	●
전통역사자산	보존	○	○	×	◎	×	◎	◎
	재생	×	●	×	×	◎	◎	◎
	개발	◎	×	○	●	●	○	○
문화예술자산	보존	×	×	×	×	×	×	×
	재생	○	×	×	×	×	×	×
	개발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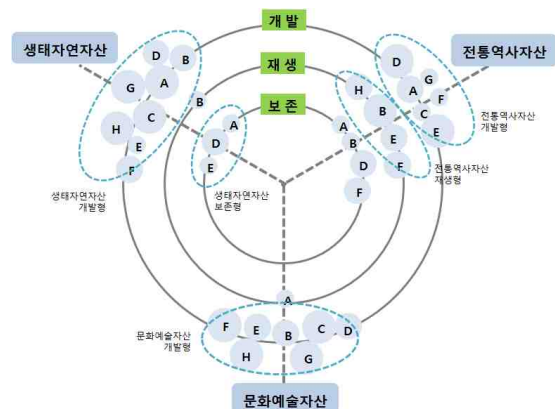
빈도 ○: 1회, ◎: 2회, ●: 3회 이상, ×: 해당 없음

[표 12] 사례 분석표-장소자산의 활용 방법

주요 자산이 생태자연자산인 경우 지역 고유의 정서를 지닌 환경을 상징하기 위한 개발 또는 경관적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 나타났다. 이는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장소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요구가 결합될 때는 풍토적 재료, 친숙한 경관 이미지 등을 활용한 개발을 통해서 융합된 장소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생태자연자산은 보존형과 개발형으로 분류하였다.

전통역사자산은 과거와의 연속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재활용하는 방법과 역사적 특성을 기초로 한 개발을 통해 장소성을 형성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재생은 전통과 역사가 지닌 상징성을 활용하여 의미를 재생시키는 차원에서 장소성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전통역사자산은 재생형과 개발형으로 분류하였다.

문화예술자산은 주로 체험적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시설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장소성을 인식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예술자산은 개발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3] 사례 분석표-장소자산의 유형 분포

5. 결론

다양성의 가치가 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각 도시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장소 전략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의 장소성 형성 요소를 기준으로 장소자산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원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특징적 장소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공원의 주제가 결정되는 특성이 보였다. 여기서의 자산은 지형, 이용자들의 행태, 의미적 요소 등 맥락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된 요소들을 의미한다.

둘째, 장소성을 형성하는 각 요소의 활용 방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리환경요소는 형태적 시각화와 의미적 시각화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며, 체험요소는 설명적 프로그램과 연상적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적 방식이 활용되었다. 의미요소는 풍토적 특성을 가시화하는 방식과 연상화를 통한 의미 인식 방식이 활용되었다.

활용 방식은 국내외 사례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외사례는 보다 맥락적인 차원에서 장소를 파악하고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자가 장소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국내 사례의 방식은 보다 직접적이고 설명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형상화 등을 통한 피상적인 상징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장소자산의 분류 및 활용방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생태자연자산은 주로 자산을 보존하는 방법과 새로운 요구가 결합된 개발적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생태자연자산 개발형, 전통역사자산 보존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전통역사자산은 의미를 재활용하거나 역사적 특성을 기초로 한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전통역사자산 재생형, 전통역사자산 개발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자산은 체험적 프로그램이나, 시설적 측면의 개발을 통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문화예술자산 개발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는 도시공원 조성 시 목적에 따른 장소 특성을 보다 잘 형성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조성 시 지역 차별적인 장소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장소자산과 그 활용방법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그 의의를 두며 향후 연구에서는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디

자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수 (2003). 「한국현대 건축에 나타난 장소성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희 (2011). 「공공공간의 장소성 형성을 위한 조형적 특성」,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호 (2003). 「장소관측적 지역발전을 위한 장소자산형성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36.
- 남윤학 (2012). 「장소정체성 구축을 통한 문화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매튜 카모나 (2006). 「도시공간과 삶의 질을 창조하는 도시디자인」, 국토연구, 298, 81-101.
- 백선휘 (2004).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승경, 김주연, 이승훈 (2009). 도시화에 따른 공공공간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8(6), 160.
- 이용균 (2005). 지역정체성과 장소 마케팅: 경기 남동부지역의 장소자산의 특성 파악과 장소마케팅 추진전략. 『한국도시지리학회』, 8(2), 57.
- 장신영 (2008). 「서울 도심 역사·문화환경의 장소 자산적 가치와 기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화, 이찬 (2011).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4), 145.
- Edward Relph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 논형.
- Kotler, P. et al. (1993). Marketing Places: Attracting Investments and Tourism to Cities States and Nations. The Free Press: New York.
- Tuan, Yi-Fu. (2001).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심승희, 구동희 역 (2007). 「공간과 장소」 서울 : 대운.